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 끌어낸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로 고용위기 극복한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 재확산 위기 내년말까지...출구전략 추진 총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계기로 군산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1년 12

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년 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2018년 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올해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 화학 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올해는 주요 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고,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위축이 가속화됐다.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끌어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실적자에 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8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해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0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면서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홍순무 화백, 고향 고창군에 작품 31점 기증

회고전 출품 인물·풍경화 등

홍순무 화백(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16일 고향인 고창군에 자화상과 인물·풍경화 등 작품 31점을 기증했다.

홍 화백은 지난 8월 개막한 '홍순무 화백 예술인생 회고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고스란히 고창군 립미술관에 기증기로 했다.

그는 "고향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고향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홍 화백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4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부르면 달려갑니다"...순창군 1천원 '행복콜 버스' 운행 개시

쌍치·북흥면 시작으로 군 전역 확대 30분 전 예약...오전 7시부터 운행

순창군은 주민이 전화로 부르면 달려가는 '행복콜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순창군은 이날 쌍치·북흥면을 시작으로 점차 군내 전역으로 행복콜 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복콜 버스는 농어촌버스의 빈 차 운행을 줄이고 주민이 필요할 때 탈 수 있도록 도입됐다.

30분 전까지 콜센터로 예약하면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버스 요금은 1000원이며,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황숙주 군수는 "행복콜 버스가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면 소재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민 기자 jyg@kwangju.co.kr



이남희 정읍시의원,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시민복지 증진 활발한 의정활동

정읍시의회 이남희(왼쪽) 의원이 최근 여의도정책연구원원이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주어지는 상이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시정질문, 조례 제정,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정읍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사매일반산단 준공...55만㎡ 분양·임대

분양가격 3.3㎡당 32만5000원

남원시는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최근 완공됐다고 17일 밝혔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978억원이 투입돼 남원 사매면 월평리 일대 77만7000㎡ 부지에 조성됐다.

분양 면적은 총 55만6000㎡이며 가운데 9만7000㎡는 임대 용지다.

분양가격은 3.3㎡당 32만5000원으로, 전북지역 일반산업단지의 74%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대는 분양가의 10%인 3.3㎡당 3만250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해마다 3.3㎡당 4875원을

임대료로 내는 형태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는 국도 17호선과 순천~완주 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 KTX 전라선 등이 지난다.

시는 분양이 완료돼 정상 가동되면 3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25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분양가가 싸고 교통망이 뛰어난 데다 각종 보조금도 지원하는 만큼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KTX 익산역 주차난 완화

공영주차장 120면 추가 조성

익산시는 KTX 익산역 인근의 역골지구에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무료로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이 일대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60면 가량의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KTX 익산역 인근 공영 주차장은 700면 인편으로 늘어난다.

익산시 관계자는 "KTX 익산역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최대 100만원

실직·휴폐업 등 2792가구

1인 20만원·3인 가구 80만원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2792가구다.

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3247가구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2792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총 15억3300만원 규모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엔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현명히 대처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작 작명 명작 작명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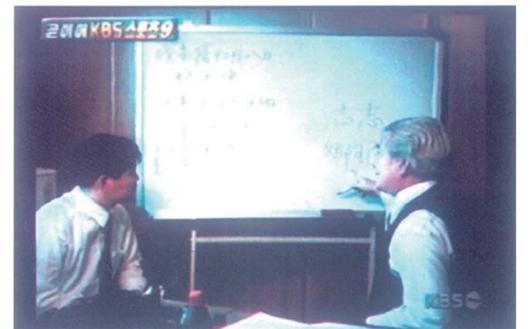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